

Korean Trail 35th Story

강천산군립공원 숲과 계곡, 절벽과 폭포가 어우러진 산책로

전북 순창의 강천산(583.7m)은 그다지 높거나 크지 않지만 계곡이 깊고 물이 맑은데다 푸른 숲과 절벽이 어우러져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렸다. 강천산군립공원 매표소부터 구장군폭포까지 2.5km 맨발산책로는 경사가 거의 없고 황토와 모래가 깔려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편하다. 폭포에서 쏟아지는 장대한 물줄기와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산책길을 동행하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는 스릴과 쾌감을 선사한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전북 순창은 북서부 노령산맥의 험한 산지와 동남부 섬진강 지류 주변에 발달한 분지가 대조되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곳곳의 계곡에서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과 수려한 산아는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강천산은 전라북도 순창군과 담양군 경계에 있는 산으로 생김새가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용천산’이라고 불렸다. 노령산맥에 속해 광덕산, 산성산과 능선으로 이어진다. 산세가 높지 않고 웅장하지도 않지만,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과 빼어난 봉우리는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계곡은 깊고 숲은 우거졌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강천산은 1981년 전국 최초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됐고,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다. 강천산 하면 애기단풍이지만,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단풍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강천산에는 왕자봉 3코스와 선녀봉 3코스, 맨발산책로가 있다. 매표소에서 강천산(왕자봉)을 돌아 하산하거나 산성산(연대봉) 또는 광덕산(선녀봉)까지 내달리는 코스는 4~5

시간 이상 걸린다. 맨발산책로는 매표소부터 병풍폭포, 강천사, 현수교, 구장군폭포까지 이어지는 왕복 5.5km 길이 아이 손잡고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듯 다녀올 수 있는 구간이다. 길은 계곡을 따라 나란히 달리는데 경사가 완만한 폭 4~5m 길이 이어진다. 쉬엄쉬엄 걸어도 3시간이면 충분하다.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계곡을 건넌다. 어디든 적당한 데 자리 잡고 발을 적시기 수월하다. 이 구간은 경사가 거의 없고 완만한 길이 이어진다.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폭포와 계곡

매표소(성인 3천원, 청소년 2천원)를 지나면 뽀뽀하게 들어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이 얼굴에 닿는다. 푸른빛으로 마음을 씻고 신선교를 거쳐 도선교에 이르면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이는 병풍바위에서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탐방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퇴적층이 휘어지면서 형성된 병풍바위는 그 자체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수려하고, 그 위로 쏟아지는 높이 40m에 너비 15m와 높이 30m에 너비 5m짜리 두 물줄기는 시원함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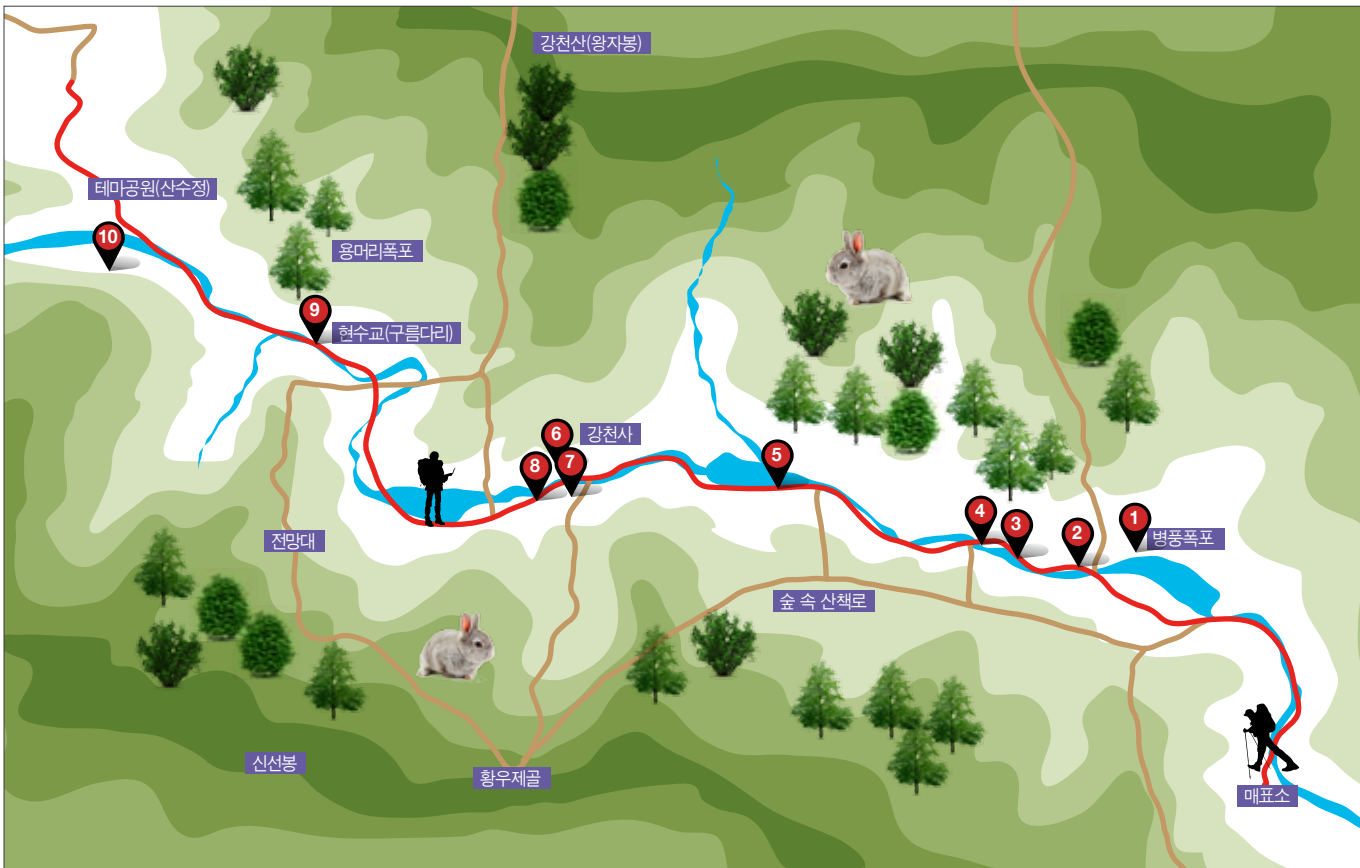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강천산은 1981년 전국 최초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맨발산책로는 경사가 거의 없고 마사토가 깔려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편하다.

15도 정도 기울어진 기암절벽에 마치 부드러운 실비단을 걸친 듯 넓은 물살을 흘날리는 병풍폭포는 원래 제주 영또폭포처럼 비가 올 때만 생기는 자연 폭포였다. 공원 측이 지난 2002년부터 계곡의 물을 퍼 올려 사철 폭포가 마르지 않는다. 폭포수를 맞거나 산선탕에 몸을 씻으면 과거의 잘못을 씻어준다는 전설이 있다. 병풍폭포를 지나자마자 '연인과 손잡고 걸으면 사랑이 깊어지고, 가족과 함께 걸으면 가족이 화목해집니다'라는 팻말이 눈에 띈다. 이곳에서부터 구장군폭포까지는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흙길인데, 연인이 손잡고 걸으면 사랑이 싹튼다고 해서 '러브 산책로'로 불린다.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걷다 교량 입구와 교량 양측 난간의 기둥을 고추 모형으로 만든 금강교를 지나면 두 나무가 한데 얹혀 자라는 연리목이 반긴다. 순창군은 장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선교는 장독 모형으로, 송음교는 메주, 극락교는 단풍, 십장생교는 십장생으로 각각 조형물을 만들었다. 길은 암벽들 사이로 계곡물과 함께 나란히 이어지고, 곳곳에 크고 작은 소(沼)들이 산재한다. 어디든지 발을 담그기에 좋고, 계곡물에 두 손을 넣으면 시릴 정도로 차갑다. 수정 같은 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흐르는 소리는 속진(俗塵)을 말끔하게 씻어준다. 하늘나라에서 선녀가 배필을 구하려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끝내 구하지 못하고 지쳐 죽고 말았다는 어미바위와 송음교를 지나면 걸인들이 굴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받아 강천사 스님에게 시주하고 부처님께 복을 빌었다는 가라시 바위에 다다른다. 바위 건너편

숲 속에는 남근석이 하늘을 향해 서 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폭포가 이루어진다는 하여 이름 지어진 천우폭포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나타난다. 폭포와 메타세쿼이아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 극락교를 건너면 소박한 절집 강천사다. 신라 진성여왕 때 도참사상으로 유명한 도선국사가 찾아와 인근에 부처 형상을 한 바위를 보고 세웠다는 강천사는 승려 1천여 명이 머물렀을 정도로 큰 절이었다. 임진왜란 때 강천사와 12개의 부속암자가 전소된 뒤 중건했으나 한국전쟁 때 또다시 잿더미로 변하는 아픔까지 겪었다. 1316년 덕현선사가 중창할 때 화강암으로 만든 오층석탑(전북 유형문화재 92호)이 시간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강천사 맞은편 산기슭에는 삼인대(전북 유형문화재 제27호)가 있다. 1515년(조선 중종 10년) 담양부사 박상, 순창군수 김정, 무안현감 유육이 죽음을 무릅쓰고 중종의 폐비 신씨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문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장소다. 당시 이들이 차고 온 직인(職印) 끈을 풀어 소나무 가지에 걸었다고 해서 삼인대(三印臺)라고 일컫는다. 강천사와 삼인대 사이에는 모과나무 한 그루가 300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도종환 시인은 모과나무를 이렇게 얘기했다. "참으로 못생긴 과일 몇 알을 키우기 위해 모과나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합니다. 못생긴 열매 몇 알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지만 삶의 향기, 사랑의 향기는 가득합니다."

'삶의 향기, 사랑의 향기에 취해' 한 걸음씩 몇 분만 내딛다 보면, 십장생교에 다다른다. 다리 옆의 용소는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데도 물빛이 코발트 빛깔이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구장군폭포로 가는 산책로이고, 오른쪽 나무 계단 275개를 올라가면 현수교 삼거리다. 왼쪽으로 50m 가면 강천산의 명물인 구름다리이고, 오른쪽으로 1km 오르면 강천산 정상인 왕자봉이다. 강천산 구름다리는 월출산과 대둔산 현수교와 함께 호남의 3대 구름다리 중 하나다. 첩첩으로 험준한 바위산 사이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는 지상 50m 높이에 폭 1m, 길이 78m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출렁거려 아찔함을 자아낸다. 다리 가운데로 걸어갈수록 다리가 더 흔들거려 오금이 저려온다. 아찔한 발 밑은 내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반면 다리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강천산 비경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한다. 연봉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기암괴석과 초록 물결, 천년을 살다 승천하지 못해 피를 토하고 쓰러져간 용의 머리 핏자국이 남아 있다는 용머리 폭포, 석담과 뇌암이라는 두 선사가 공부하던 수좌굴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구름다리를 건너면 왼쪽은 신성봉 전망대로 오르는 길이고, 오른쪽은 구장군폭포로 내려가는 길이다. 구름다리 아래 쉼터 광장에서 잠시 목을 축인 후 구름다리를 뒤로하고 걷다 보면 순간 시야가 확 트인다. 120m 높이에서 폭포수가 기암괴석 사이로 동시에 쏟아진다. 좌우측 두 개의 폭포는 각각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타고 쏟아지는 폭포수에 가슴이 후련해진다. 구장군폭포도 원래는 장마철에만 모습을 보이는 마른 폭포였지만 물을 끌어올려 사계절 폭포수가 쏟아지

게 됐다. 황호숙 문화관광해설사는 "이곳은 옛날 마한시대 9명의 장수가 전쟁에서 패해 동반 투신하러 왔다가 다시 의기투합해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명소"라고 소개한다.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한다는 선녀탕도 슬픈 전설을 품고 있다.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캐다가 폭포 아래 용소에 떨어졌고, 목욕을 하던 선녀와 사랑에 빠졌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옥황상제는 두 사람에게 폭포에서 거북이로 살게 하고 천 년이 되는 날에 폭포 정상에 오르면 하늘로 올라 주리라는 약속을 했다. 천 년이 되는 날 동트기 전, 산신령인 호랑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승천한다고 거북이의 길을 막았다. 결국 호랑이와 다투다 동이 트고 말았고, 거북이는 바위로 변했다. 절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암거북과 숫거북, 호랑이 형상을 찾을 수 있다. 구장군폭포 옆에는 폭포를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정자 산수정과 삼척의 해신당 공원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성을 테마로 한 공원이 조성돼 있다. 공원에서 길은 두 갈래다. 왼쪽이 광덕산 선녀계곡을 거쳐 선녀봉으로 향하고 오른쪽은 강천 2호수를 지나 산성산 연대봉으로 간다. 하산할 때는 강천사를 지나서 숲 속 맥 산책로를 걸으면 피톤치드가 온몸으로 스며든다. 강천산군립공원의 맨발 산책로는 등산이라는 말보다 산책이 더 어울리는 쉼터다. 옷소매 사이로 불어오는 숲 속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소를 향해 내리쬰는 폭포수와 계곡 물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강천산으로 떠나보자.



❶ 기암절벽에 병풍을 치듯 넓은 물살을 흘날리며 떨어지는 병풍폭포의 물줄기가 볼거리를 선사한다.



❷ 금강교를 지나면 두 나무가 한데 얹혀 자라는 연리목이 반긴다.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가 산책길을 동행한다.

❸ 길을 걷다 보면 투구봉, 어미 바위, 거라시 바위, 부처 바위 등이 줄을 잇는다. 거라시 바위는 걸인들이 굴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받았던 곳이다.



❹ 거라시 바위 건너편 숲 속에 있는 남근석. 예부터 남근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❺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신록을 즐기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난다.



❻ 강천사는 단출하지만 단아한 절집이다. 대웅전 앞뜰에 있는 오층석탑은 1316년 덕현선사가 중창할 때 화강암으로 만든 5층 6각의 다보탑이다.



❼ 강천사 맞은편의 삼인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중종의 폐비 신씨의 복위를 상소한 삼인의 충신을 기린 비각이다.



❸ 300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과나무는 강천사에 머물던 스님이 심었다는 설과 조선 후기 순창 출신의 실학자인 신경준이 심었다는 설이 함께 전해진다.



❹ 강천산의 명물인 빨간 구름다리가 초록빛으로 물든 숲 속에서 유난히 돋보인다. 강천산 구름다리는 월출산, 대둔산 현수교와 함께 호남의 3대 구름다리 중 하나다.

❺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타고 쏟아지는 구장군폭포는 쌍폭으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회문산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회문산 역사관(왼쪽)과 나비와 나방, 비단벌레 등의 표본이 전시된 곤충관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회문산 자연휴양림 TV 없는 숲 속에서의 여유로운 하룻밤

순창군 구림면에 있는 회문산은 영산(靈山)으로 예부터 우리나라의 5대 명당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빼어난 절경과 함께 역사적으로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명산 중턱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에 안성맞춤이다.



'숲속의 집'이 계곡 옆에 줄지어 있고, 자연휴양림 최상단에 샤워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야영장이 있다.



노령산맥의 봉우리 중 하나인 회문산(837m)은 주봉인 회문봉을 위시하여 남쪽의 돌곶봉, 서쪽의 장군봉, 동쪽의 깃대봉 등 수많은 연봉과 골짜기들에 첩첩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암석군으로 형성된 돌곶·시루바위 등은 보기 좋은 경관을 이룬다. 신갈·떡갈·졸참·굴참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종이 우거졌고, 계곡물은 맑고 시원하다.

1980년대 소설 '남부군'으로 널리 알려진 회문산은 구한말 면암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양운숙 의병대장이 일제와 맞서 치열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곳이며, 민족종교인 갯정유도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관리사무소를 지나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면 좁은 길에 양쪽으로 베틀어선 노령문이 나타나고, 계곡 물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숲속의 집' 8동이 계곡 옆에 줄지어 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은 보기만 해도 더위가 사라지고, 숲 속에서의 하룻밤이 기대된다.

산림문화휴양관과 비목공원에서 임도를 따라 700m 가면 야영 댁이 16개가 있는 야영장이 나온다. 샤워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자연휴양림 최상단에 위치해 숲도 깊고 아늑하다. 곧게 뻗은 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폐 속 가득 생기를 불어넣어 마음뿐 아니라 몸 구석구석까지 정화되는 느낌이다. 특히 103번과 116번은 독립성도 좋고 전망이 좋아 명당으로 꿈을 만한 환경이다.

숲에서의 진정한 힐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객실에서 TV를 없애는 대신 체험 교실, 숲 속 도서관, 놀이공간을 구성해 가족문화가 살아 있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객실에 블루마블, 장기, 바둑, 테드민턴 등이 마련돼 있고, 숲 속 도서관에는 여행 역사 소설 등 800여 권, 아동 유아 도서 900여 권이 구비돼 있다.

곤충관에서는 모시나비, 호랑나비, 산제비나비, 은판나비 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왕오색나비 등 회문산에서 채집한 나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496호인 비단벌레, 장수풍뎅이, 나방 등의 표본을 생태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모시나비의 짝짓기 전과 후의 모습, 나비와 나방 구별법 등은 흥미롭다. 목공예 체험실에서는 목걸이, 열쇠고리, 우드버닝제품, 곤충상태 꾸미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회문산 역사관은 호남의 명산-회문산, 회문산과 오선위기 명당, 만일사에 얹힌 순창 고추장, 갯정유도의 발상지와 천주교 성지, 승전의 깃발-패전의

아픔 전봉준 장군, 구한말 순창 의병 활동, 빨치산과 회문산 등으로 구성돼 저항과 투쟁으로 얼룩진 근·현대사를 겪은 회문산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다,

자연휴양림에서 회문봉까지는 1시간 이내로 올라갈 수 있다. 정상에 서면 멀리 지리산과 무등산, 내장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

Tip

이용 방법과 요금

회문산 자연휴양림은 아이들과 함께 생태 학습을 하고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휴식처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다. 침구, 식기, 밥술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 5인실 8만5천원/4만6천원(성수기와 주말/비수기 평일), 7인실과 8인실 10만4천원/5만8천원.

산림문화휴양관 6인실 7만7천원/4만2천원, 9인실 10만7천원/6만3천원.

야영 댁 6천원(9~13㎡ 미만)과 7천원(13㎡ 이상)으로 입장료와 주차료는 별도.

문의

회문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 063-653-4779

가는 길

